

01 교회소식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02 생명의 말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사랑(2)

연단 중에도 하나님 사랑을 굳게 믿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믿으며, 오직 선만 행할 때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다.

03 기획특집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4)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으로 2004년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감동을 되새기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04 간증

"주님이 계시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역사로 이명 증세가 사라진 김중은 집사와 종양이 확연히 줄고 미각이 되살아난 일본 히와타시 미카코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884호 2019년 4월 1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내 마음 깊이, 십자가 사랑을 새깁니다!”



고난주간 맞아 사진으로 보는 '비아도로로사'

비아도로로사는 슬픔의 길, 수난의 길이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곳으로부터(1처소)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장사된 무덤(14처소)까지 약 800m의 길을 14개 처소로 구분해 놓았다(3면 지도 참조).

고난주간을 맞아 '비아도로로사'를 사진으로 함께 보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떠올리며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되새겨 본다.

- 1처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곳. 현재 이람 사람들의 초등학교가 서 있다.
 - 2처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기 시작하신 곳으로 채찍교회가 서 있다.
 - 3처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첫 번째로 쓰러지신 곳. 이곳에는 1856년 세워진 아르메니아 기념교회가 있다.
 - 4처소/ 예수님이 동생녀 마리아를 만나신 곳.
 - 5처소/ 현재 리비아인 구레네 지방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곳으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
 - 6처소/ 혈루병을 치료받은 여인이 성난 군중과 병사들 틈을 뚫고 들어가 피땀으로 범벅 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곳.
 - 7처소/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
 - 8처소/ 예수님이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곳.
 - 9처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거의 다 올라가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
 - 10처소/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
 - 11처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 12처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곳.
 - 13처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은 곳.
 - 14처소/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
- * 10~14처소는 모두 성모교회 안에 있다.



만민중앙교회, '지역복지 발전 공로' 감사장 수상

지난 4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서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후원자 감사장 전달식이 있었다.

평소 우리 교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하신 말씀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힘써왔다. 이번 동작구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복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표창패와 동작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 모금과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이다. 이날 40여 개 기관·단체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으며, 우리 교회는 10여 년 동안 매월 쌀 20kg 10포를 동작구청에 후원해 왔다.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사랑(2)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고린도전서 13:4~7 -

당회장 이재록 목사

고린도전서 13장 4~7절을 보면 영적인 사랑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에 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란?

영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다 보면 그에 따른 여파가 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큰 물결이 지나가면 그 뒤에 잔물결이 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을 때에도 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기도 하고 마음에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참을 때에 따르는 여파는 외부 환경으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참았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이 따르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농작물이 비와 바람, 따가운 햇살을 견딤으로 실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이러한 견디는 시간을 통해 알곡으로 맺혀집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 경작의 섭리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어찌하든 꾀방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조금의 흠과 티만 보여도 송사를 하지요.

예컨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는 참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보기 싫다,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있다면, 원수 마귀 사단은 이를 알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송사하고 연단이 시작됩니다. 마음에 악이 없다고 인정받기까지는 연단이라는 테스트가 따릅니다.

물론 악이 전혀 없어도 연단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악이 없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 온전한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축복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큰 믿음과 사랑의 행함으로 응답받을 만한 그릇임을 증명해야 원수 마귀 사단이 더 이상 송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시련의 비바람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럴 때 오직 선과 사랑으로 인내하면 결국 승리해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특히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애매히 받는 핍박이나 고난은 잘 이겨내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마 5:11~12).

2.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면 어떤 연단이든지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으면, 모든 것이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이니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고통이 크고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약 1:4).

2)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4절에 “...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한 대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지

름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볼 때 ‘어느 세월에 변화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마 끝에 빛나는 보석처럼 연단을 잘 견딤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연단을 통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연단을 피하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주위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다면 싫은 내색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에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문제를 마주 대할 때의 힘듦을 인내하며 상대를 진정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이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변화되도록 이끄십니다. 이처럼 연단의 상황들 하나하나가 소망을 이루는 징검다리기가 되고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3) 모든 것을 견디려면 오직 선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았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시험 환난은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시련은 원수 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곧 시험 환난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계의 법칙대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한 대로 선을 행하면 당장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선이 승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환난, 핍박이 올수록 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쩌면 저렇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악할까?’라는 생각이 남아 있다면 연단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주 안에서 섬김으로 가정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선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시 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신속히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을 행할 때 풀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는 일마다 주변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토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하무인이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마음에 참된 사랑을 이루면 견디기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를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게 됩니다(마 2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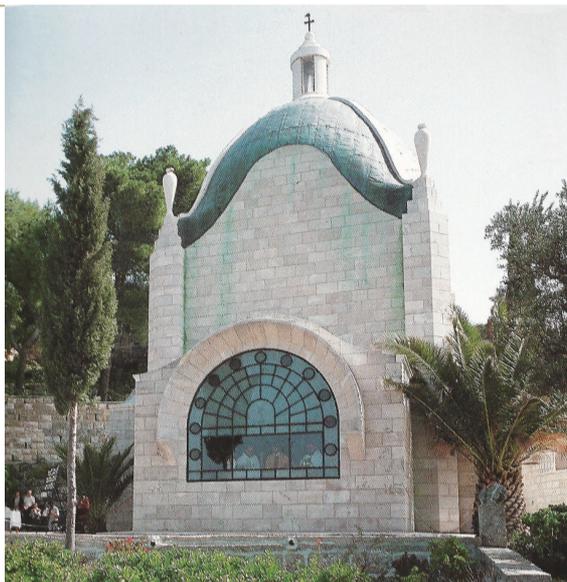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러한 참사랑으로 이해하고 견뎌 주십니다. 살 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이물질들을 풀어 끝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 내는 조개처럼 우리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 다가오는 모든 아픔을 믿음과 소망으로 잘 견뎌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사랑'이라는 최상품의 사랑을 만들

면 장차 열두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랑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아 신속히 영적인 사랑을 소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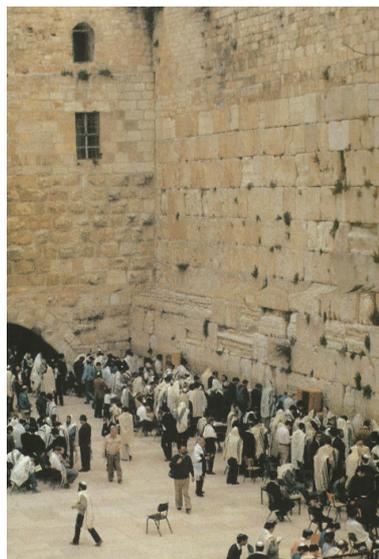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한 어두운 도시이다. 감람산 중턱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아셨기에 탄식하며 눈물 흘리신 사건을 기념하는 눈물교회가 있다(위 사진).

*** 이스라엘 역사의 땅 예루살렘**

예루살렘만큼 전쟁의 참화를 여러 번 경험한 도시도 드물다. 예루살렘은 B.C. 1000년경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았다. 이후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나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포로생활 이후 예루살렘에 귀환한 스룹바벨이 B.C. 515년 성전을 재건하였으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했다. B.C. 37년, 로마제국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한 헤롯이 통치하면서 유허정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였는데 이를 헤롯 성전이라 부른다.

그러나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었다. 당시 성전을 받치고 있던 서편 축대의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바로 통곡의 벽이다(사진).



이스라엘 멸망 이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였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에도 이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며 성전이 재건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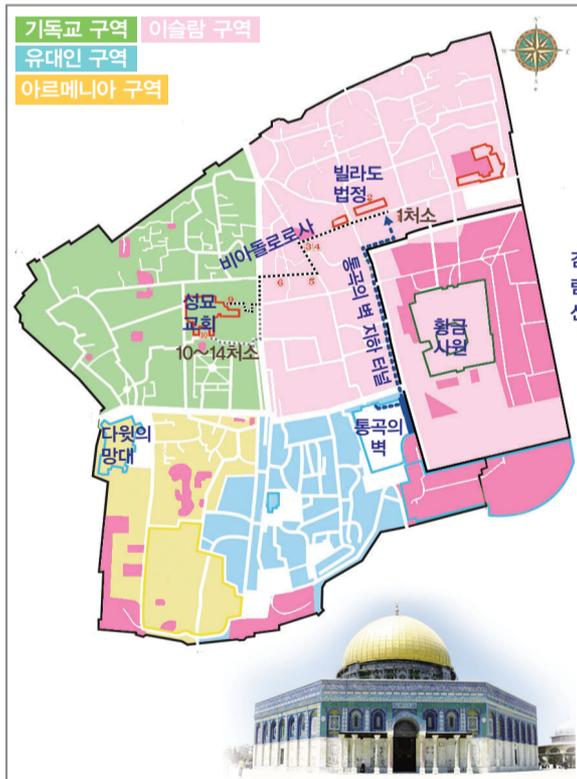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 4 >>>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37)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된 예루살렘**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시가지에는 유대인의 회당과 가톨릭의 성당,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각기 독특한 양식으로 어우러져 있다. 서북부는 여러 종파의 기독교 구역, 동부는 이슬람 구역, 동남부는 유대인 구역, 서남부는 아르메니아 구역으로 나누어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존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신 곳이며, 십자가에 달려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곳이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으로 성지 중에 성지로 뽑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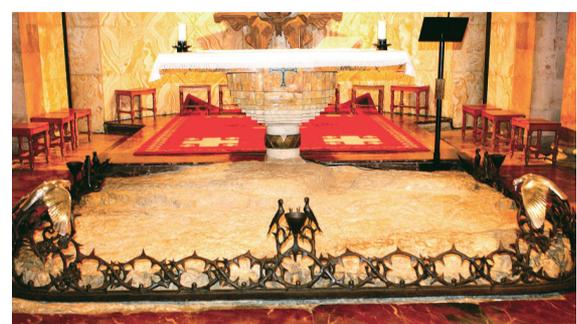
*** 감람산 겹세마네 동산**

성지 순례단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감람산에 있는 겹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

고대부터 감람나무가 무성한 감람산은 감람원이라고도 한다. 네 개의 봉우리를 가진 조그만한 언덕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해발 800m 정도이다.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쉬며 기도하셨다(눅 21:37, 22:39~41).

겹세마네 동산은 십자가의 섭리 가운데 가룟 유대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곳이다. 그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겹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눅 22:44).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 제단 앞에는 큰 바위가 자연석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앞드려 기도하셨던 바위라고 했으며, 동산에서는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도 볼 수 있었다.



한편, 통곡의 벽 위쪽에는 황금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8각형의 둥근 바위 사원(Dome of the Rock)이 보인다(위 사진). 7세기경, 이슬람교도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바위 사원을 건축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도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불화가 그치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당시 솔로몬 성전 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제단으로 전해 오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런데 이슬람교도들은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쳤으며, 마호메트가 그 바위를 딛고 승천했다고 하여 예루살렘을 메카와 메디나 다음으로 중요한 성지라고 여긴다.



“이명 증세가 사라져 날아갈 듯 좋습니다!”

김종은 집사 (83세, 2대대 16교구)

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습관이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2017년 초, 왼쪽 귀에 이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름밤에 풀벌레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나더니 나중에 심해져 계속 들렸습니다.

잡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60% 정도밖에 알아들을 수 없어 대중 추측으로 이해하려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지요.

◆ 그런데 2019년에 들어와 ‘만민뉴스’에 게재된 은사집회를 통해 치료받아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읽으며 ‘나도 믿음으로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치료

받기를 소망하며 2월 18일부터 시작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기도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였지요. 매일 밤 정성을 다해 기도하니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사모하며 오전에는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하였지요. 3월 28일(목) 이복님 원장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제 몸에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예배 2부 은사집회 때에는 이수진 목사님이 해 주시는 전체를 위한 손수건 기도를 받았지요.

◆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요일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일

어났더니 저를 괴롭히던 이명 증세가 사라져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개운하고 흐뭇했는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왼쪽 눈에 비문증으로 하루살이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 은사집회에 참석한 뒤로 증세가 많이 호전돼 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지요.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영광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가 넘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혀 종양이 확연히 줄고 미각이 살아났어요!”

히와타시 미끼코 집사 (69세, 일본 야마가타만민교회)

1년 전부터 미각이 둔해져 요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런데 2019년 3월 26일(화), 햇바닥 왼쪽에 몽우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혀암으로 의심되니 지체 하지 말고 큰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보아왔고, 저의 삶 속에서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세상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 다가오는 3월 29일 은사집회 때 치료받아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도 제 부주의로 넘어져 아스팔트에 어깨와 얼굴을 강하게 부딪쳤지만 아무런 외상없이 지킴받는 체험을 했지요. 마침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기간 중이라 저는 하나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며 은사집회를 준비하였고, 야마가타만민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 3월 27일, 저는 수요일예배를 드린 뒤 주제규 장로님을 뵈고 제 상황을 말씀드렸지요. 장로님은 그동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 금식과 기도로 은사집회를 준비했다면 좋겠다고 조



언해 주셨습니다. 그 뒤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저를 위해 정성껏 기도해 주셨지요.

이후 저는 회개하며 정성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기도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 마침내 3월 29일이 되어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금요일예배에 참석하여 2부 은사집회 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뒤 시공을 초월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기도받을 때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들어 마음이 가벼웠는데, 이후 거울을 보고 제 햇바닥을 확인해 보니 몽우리가 많이 줄고 백태도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미각이 되살아나 예전처럼 음식 맛을 느끼니 요리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일은 제게 큰 믿음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보호받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성결을 꼭 이루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지요.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